

구 모지 미쓰이 클럽

구 모지 미쓰이 클럽은 1921년 일본의 상사인 미쓰이 물산의 직원과 빈객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저명한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숙박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건물은 원래 모지시 중심부의 동쪽에 위치한 다니마치의 산간 지구에 있었습니다. 건물은 1949년에 일본국유철도에 인수되었고, 1990년에 모지시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 직후 모지코역 근처의 현재 위치로 이축되었습니다. 구 모지 미쓰이 클럽은 일본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구 모지 미쓰이 클럽의 호화로운 디자인은 20세기 초 상사의 번영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건물은 하프티머 양식이라 불리는 유럽 전통의 목조 건축 공법으로 만들어졌으며, 인테리어는 장려한 유럽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모지가 국제적인 무역항으로 번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부와 외부 모두 유럽식

건물 정면의 디자인은 1920년대 초에 유행한 유럽 건축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목조 골조 사이를 회반죽과 벽돌, 돌 등을 사용해 메워 벽을 만들었고, 독일 건축처럼 목조 골조가 그대로 외관 디자인의 악센트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유럽풍 디자인인 것은 아닌데, 북쪽에 있는 기와지붕과 회반죽 벽으로 되어 있는 단층의 작은 별관은 분명하게 일본풍입니다. 이 별관은 클럽 직원들이 이용했습니다.

클럽의 인테리어는 유럽식 외관과 잘 어울립니다. 현관에는 돛에 바람이 가득 찬 배를 표현한 스테인드글라스가 있어 클럽의 원점이 해운에 있었음을 상기시킵니다. 문을 열면 화려하게 장식된 맨틀피스(벽난로의 윗면에 설치한 장식용 선반)와 샹들리에가 있는 우아한 거실로 이어집니다. 오른쪽에는 그랜드 피아노를 갖춘 응접실이 있으며, 이벤트와 리사이틀에 사용됩니다. 두 방 모두 천장의 부조, 대리석 벽난로, 장식적인 맨틀피스에서 볼 수 있듯이 아르 데코 양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1층에는 레스토랑도 있어 북어회와 야키 카레 등의 향토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부부의 방문

처음 27년 동안 모지 미쓰이 클럽은 영빈관이기도 했으며, 2층에는 서양식 객실이 있었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과 아내 엘사는 1922년 일본을 여행했을 때 2층 스위트룸에 5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여행의 마지막이자 가장 길게 방문한 곳인 모지에 도착했을 무렵 알베르트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여행 일기에는 독일어로 ‘나는 죽었다. 나의 시체는 모지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크리스마스 미사에 끌려가 아이들을 위해 바이올린을 연주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2층의 아인슈타인 메모리얼 룸은 아인슈타인 부부가 머물렀던 당시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직접 쓴 편지와 아이들의 크리스마스 미사에서 연주한 바이올린을 들고 있는 아인슈타인의 사진이 있습니다.

모지 출신 작가 하야시 후미코를 그리며

2층에는 모지 출신 작가인 하야시 후미코(1903~1951)의 기념실이 있습니다. 미혼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가난 속에서 자란 후미코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특히 여성에 대한 이야기와 시를 썼습니다. 기념실에서는 그녀가 상경하기 전 수년간의 추억이 담긴 물건, 초기 소설, 10대 시절에 쓴 그림엽서, 1932년의 파리 여행 일기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녀의 작품이 영화화되었을 때의 포스터와 말년에 그녀가 사용한 책상의 복제품도 전시되어 있습니다.